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1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5. 속죄하신 구세주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형상대로 저희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귀한 그릇에 정욕과 우상을 담았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담으려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흰눈보다 더 하얀 마음으로, 깨끗이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족한 줄 알고 살길 원합니다. 더 이상 끝없이 들려오는 탐욕스런 세상의 노랫소리에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허물을 발견하면 들춰 상처내기보다는 아량과 이해로 덮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1:3 …… 인도자

♠ 교 독 문 …… 40. 이사야58장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조관행 집사 II.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13. 먹보다도 더 검은 …… 다함께

성경봉독 …… I. 롬7:21-8:6 …… 인도자
II. 벧전4:1-3,7-11 임정자 권사

찬 양 …… 주님을 보았소 …… 찬양대

말 씀 …… **I. 영혼의 나침반** …… 김재흥 목 사
II. 정신을 가다듬고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 다같이

헌신의 찬송 …… 508. 주와 같이 되기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정신을 가다듬으십시오.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멈추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욕심만을 따라가는 삶이 우상숭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교사헌신예배	3월 기도의 밤
설교: 김재흥 목사	인도: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성운 전도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안길상 권사

3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준호	고광송	곽혜자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안길상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 믿/음/으/로/읽/는/글/

기도 – 루가 11:13

(주님)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였기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기도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는 마음의 외침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진실해야 하며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는 입술이나 정신이 아니라 의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너희 의지를 진실하고 단순하고 진지하게 하느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오랜 시간이나 많은 말이나 생각이 필요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기도가 때로는 다소 길어지기도 하고 짤막할 수도 있다. 기도가 단순하다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좀 덜 단순하다면 몇 개의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너희가 표현하는 것은 너희 의지의 상태이다. 불완전함과 무질서한 애착으로 어수선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로써 바로잡힌 마음,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의 너희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도란 은총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지향 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여라. 나는 이것만을 바란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이 원하시며 너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 문장 안에 들어 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기도는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이며 더 나아가서는 단지 눈길만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분을 관상하는 데만 몰두하여 말없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상태이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 기도이다.' 영혼의 눈길이 더 많은 사랑으로 차있을수록, 또 영혼이 그의 하느님 앞에서 더 상냥하고 애정 깊게 머물수록 그만큼 더 좋은 기도가 된다. 기도는 또한 넓은 의미에서 말없는 관상이나 경배와 사랑, 자기 봉헌, 자기 전존재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하느님의 행복과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는 말마디,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죄를 보속하고 뉘우치는 말, 청원의 말마디들이 곁들여진 관상일 수도 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뿐이다. 매일 기도에 바치는 시간외에도 너희는 자주 나에게로 영혼을 들어 올려라. 너희가 하

는 일의 종류에 따라 너희는 자주 나에게로 영혼을 들어 올려라. 너희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너희는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거나 – 손으로 하는 작업일 경우– 혹은 가끔씩 눈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자주 그렇게 하여라. 끊임없이 나를 관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미롭고 또한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관상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며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일할 때에도 가능한 자주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눈을 나에게 돌리며 나를 계속 생각하여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할수록 더 잘 기도하게 된다. 기도란 나에게 사랑의 시선을 고정시킨 한 마음의 자세이다. 그 마음이 사랑에 차 있을수록 기도는 훌륭해진다."

성덕 – 루가 12:48

"내 귀염둥이요 내 마음에 들며 내 특전을 받은 너희, 내가 가장 사랑하며 내 선택을 받은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아야 한다.' 내가 선택하여 그토록 많은 은총을 준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 말을 한다. 너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내놓아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는 이 호의의 크기가 곧 너희에게 요구되는 성덕의 크기이다. 매우 높은 성덕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교만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와 반대로 오히려 교만과는 거리가 멀어서 차라리 의무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은 높은 성덕에로 오르라는 명령과 같다. 한 영혼에게 많은 은총을 주는 것은 마치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네가 거룩해지길 바란다. 나는 네게 준 이 커다란 은총에 대해 정확히 셈바치기를 요구할 것이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내 은총과 호의를 받을수록 너희 안에는 겸손과 두려움이 커질 것이다. …… 그러나 너희에게 양식(良識)이 있다면 오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망임을 알고 어떤 역경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며 나의 무한한 자비에 신뢰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아무리 비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가슴에 달아들어 안길 수 있음을 안다면 – 잃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듯이 – 결코 실망할 수 없을 것이다."

– 사하라의 불꽃, 샤를 드 푸코의 영적 수기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오늘을 위한 기도

.....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제가 더러는 오해를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에
눈물 흘리게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인내로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슬기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밖에는 없는 것처럼 투신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제 안에 항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어느 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직이 외우는 저의 기도가 하얀 치자꽃 향기로 오늘의 잠을 덮게 하소서

– 이해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박병선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정현주 안종일 구명자 홍순구 안홍숙 김준호 곽혜자 왕성환
강순배 이봉옥 박규석 박경선 정완수 김재광 배삼순 임승동 백혜숙 이건화
김희진 박홍재 박정숙 고광송 이춘희 최미선 김애경 박성수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정미경 이동천 황경순 박병구 왕수명 이소순
김성자 서정순 임종길 김 극 류건형 박순성 이경남 조항신 이봉배 이호원
권미정 박범희 박미영 박찬정

감사헌금:

김기석 왕성환 강순배 최미선 박홍재 김준호 박운양 한상익 정영선 윤정덕
구성실 김근종 정옥영 유소정 권채영 무명1

생일감사헌금:

유동휘 유동호 이재문 임보람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합속회	하 재 두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건 화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진 경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희 우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한 선 희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지난 재의 수요일(1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3. **교사회의** : 교회학교 교사회의가 청년부실에서 12시 50분에 있습니다.
4.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교사헌신예배입니다.
5. **기도의 밤 :** 8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6. **성서연구반 :** 3월 9일(목)부터 목요성서연구반 개학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7. **신앙실천 :**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줄이기 위해 버려야할 습관들을 꼽아보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 헌화 : 하현철 권사 최성애 집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